

재형저축 구하기, 고정금리 긴급 처방

출시 3개월 가입자 점차 줄어 3%대 상품 이르면 7월부터 출시

18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출시 석 달(6일) 만에 찬밥 신세다. 새 고객이 없어서다. 은행들은 적극적인 판촉을 중단했다. 일부 영업점에는 재형저축 현수막이 사라졌다. 이에 당국이 수요 창출에 나섰다. “금리구조를 다양화하라”고 은행에 주문한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이르면 7월부터 ‘고정금리’ 재형저축을 내놓는다.

◇고정금리 재형저축 나오는 이유는=지난 3월6일 16개 시중은행이 앞다퉈 출시했던 재형저축은 하루 만에 30만 계좌가 팔렸다. 은행엔 200억원이 몰렸다. 고객확보 경쟁도 치열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과당경쟁을 자제하라고 제동을 걸 정도였다.

3월 한 달만 130만6345계좌(해지 계좌 미포함)가 나왔다. 그러나 누적 판매량은 4월 161만3765계좌(“)로 주춤더니, 5월 165만3553계좌로 재자리걸음을 했다.

한 은행 영업점 직원은 “정기적으로 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좌를 굳이 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사실상 4월 이후로 신규가입이 정체상태란 얘기다.

재형저축은 애초 당국 주도로 부활했다.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이유에서다. 4%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데다 만기 7년 중 3년의 고정금리를 보장했다.

은행으로서는 금리변동 리스크가 컸다. 가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5월, 2.75%→2.50%) 재형저

저축의 금리는 출시 당시 그대로다. 사실상 정부 발(發) 상품인 만큼 금리엔 손을 못냈다. 손해를 보는 만큼 은행의 판매 유인은 떨어졌다.

얼기가 식는 데에는 소비자의 변심도 한몫했다. 재형저축은 중도해지하면 세금감면도 못 받고 이자율도 기본 금리 절반 이하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율이 1~2%대에 불과해 다른 예금상품보다도 오히려 열등하다.

만찬가지로 3년 안에 금리수준이 올라갈 위험도 있다. 예금자들의 반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고정금리 재형저축, 서민 재산형성 도움될까=고정금리 재형저축이 나오면 금리는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3%대 초반 수 준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7년이라는 기간에 금리가 오르내릴 위험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재형저축 금리는 4%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7년 내내 고정금리가 아니라, 3년 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4년 은 그 시점에서 알맞은 고정금리를

다시 적용하는 상품도 검토된다.

출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은행은 최저금리 수준을 보장하는 상품을 연구 중이다. 이 경우 이율은 ‘초저금리’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장기고정금리 상품이 재형저축의 목표인 ‘서민 재산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면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재형저축만으로 부족하다.”며 “외국처럼 서민이 저축하면 일정 비율을 비례해 국가·민간재원으로 적립해주는 ‘매칭펀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재산형성에 중요한 것은 새 저축상품이 아니라 소득개선이란 분석도 있다. 한 취업정보 회사가 4월 직장 42.9%, 4000만원대는 40.5%였지만 2000만원 이하의 17.8%에 그쳤다.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信·經분리 정착, 금융시스템 신뢰 확보”

“농민·농촌 이익 추구 최선”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6일 “농협금융 경영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이견이 있더라도 대주주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이날 내정 발표 직후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중앙회와의 갈등 구조와 관련, “기본적으로 자본의 100%를 중앙회가 가진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현 회장이 중앙회의 잦은 경영 간섭과 구조적인 갈등 탓에 지난달 중도 사퇴를 선언했지만, 자신은 중앙회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찾겠다는 것이다.

임 내정자는 “(중앙회와) 의견이 항상 같을 수 없을 것”이라면 서로 “원칙을 갖고 지혜롭게 접근

하면서 농민과 농촌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이 농협금융의 ‘태생적 한계’로 지목한 농협법과 금융지주사법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는 어떻게 운용하는지 더 중요하다”며 정부에 담당 법 개정용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농협금융의 당면 과제는 신·경 분리(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체제의 조기 정착과 지배구조의 조속한 안정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지주사 체제로 출범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체제를 잘 정착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회장 선임 등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논란이 불거지는데, 이를 불식시키는 게 내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금융은 (중앙회 산하로서) 공공성을 중시하며 금융기관으로서 수익성도 확보해야 하는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주사 본연의 핵심 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농협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관건”이라며 “정부가 등 금융기관으로서 신뢰에 상자를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위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과 관련 조직의 지원에 대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인력 풀을 만들고 평판 조화를 거쳐 의견을 물어오기에 지원했다”며 “주변의 권유는 있었지만, 등 떠밀러 간 것은 결코 아니다”고 답했다.



때 이른 더위에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백화점은 찾은 고객이 대표적인 절전형 여름상품인 대자리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력난속 절전형 여름상품 뜬다

부채·모시·대자리 등 매출 ‘굉종’

지난 5일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전력경보 ‘관심’이 발령된 가운데 전기 없이 더위를 견디는 데 필요한 부채와 모시, 쿨스카프 등 절전형 여름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 극

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5% 증가했다. 그동안 이마트에서 구색 갖추기 용으로 3가지 종류만 판매했으나, 매출신장에 힘입어 최근 상품 종류를 20개로 늘렸다.

모시 제품도 절전형 여름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력난 속 시원한 여름을 보내려는 고객들이 늘면서 모시 트렁크는 전년 대비 132%, 모시 팬티는 87%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광주신세계 지하1층 카루소 생활매장에서는 1인용 방석을 1만원대에,

광양제철 세계 최대 용광로 오늘 가동

연간 쇠물 565만t 생산

광양제철소에 들어선 세계 최대 용광로가 가동에 들어간다.

포스코는 7일 오전 11시 광양제철소 제1고로의 개수 작업을 마치고 고로 아래에 불을 집어넣는 화입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용량 3800m³이던 광양 1고로는 개수 작업을 거쳐 용량 6000m³의 세계 최대 용광로로 탈바꿈했다. 연간 쇠물 565만t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중형 승용차 565대 분량에 해당하는 철을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고로는 중국 철강사 사강그룹의 1고로(용량 5800m³)였으며 광양 1고로가 근소한 차이로 늘었다.

광양 1고로는 1987년 첫 쇠물을 만들었고 올해 2월 개수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쇠물 약 7700여만t을 생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개수 작업을 마친 1고로는 기존보다 연간 쇠물 생산량이 약 5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규모뿐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도 세계 최고가 되도록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제12회 이화 아카데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이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CEO, 유관기관장, 대학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회 이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카네기연구소 최일순 대표를 초청해 ‘카네기에 듣는 인간경영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화 아카데미’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360-9105).

롯데백화점 지역 최대 ‘해외 명품초대전’

“초대합니다. 실속있는 가격에 해외 명품을 구입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역 최대 규모로 ‘해외명품 초대전’을 진행한다.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5분 담가두면 아이스 풀리머가 팽창해 시원해진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는 프라다·펜디·발리·버버리 등 광주지역 미인점 명품 브랜드 15개가 참여하며 20억원 규모의 해외 직소싱 상품을 10~50% 할인로 판매한다. 제품 구매시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혜택 등 다양한 시은행사도 함께한다.

1층 행사장에서는 13일까지 비비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세계의무대는세계입니다!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선로16길... 4477 전남 순천... 114 강원...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